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실태 조사 연구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of the Health for the Foreign Workers

조 현 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개발로 동남아시아와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 꿈을 찾아 한국으로 모여 들고 있다(박석운, 1995).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은 이제 단순히 3D(Difficult, Dirty, Dangerous)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중소제조업체 및 서비스분야까지 점차 그 폭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연심, 2000). 2008년 3월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258,715명인데, 국가 별로 보면, 방글라데시가 1위, 2위는 키르기스스탄, 3위 파키스탄, 4위 미얀마, 5위 파라과이, 6위 아르헨티나, 7위 이란, 8위 네팔, 9위 페루, 10위 카자흐스탄 순서로 나타났다(법무부, 2008).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설동훈, 2004). 그러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는 아직도 불법체류의 신분으

로 이러한 기본적인 권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 숨어 사는 신세로 전락 하고 있다. 따라서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도 마음대로 못하고 공장의 나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도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이 있어도 고용주의 피해보상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평생 지내야하는 것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의 제한과 부정적인 결과에 관해서는 다수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체류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동 주거조건'에 노출되기 쉬운데, 거기에 더해 내국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정치적, 행정적,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를 위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건강관리의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은 각 사회마다 그리고 해당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장벽의 사례로는 언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이한 인식, 인종차별 등을 들 수 있다(설동훈, 2005).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교신처 E-mail: jhungung@hanamil.net)
접수일: 2008. 8. 31 심사일: 1차 2008. 10. 1 2차 2008. 11. 15 게재확정일: 2008. 11. 24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상태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홍윤철과 하은희, 1996; 주선미, 1998; 허현주, 2001; 김현리 등, 2006)는 여러 편 있어왔으나 이러한 건강문제를 불법체류여부나 성별에 따라 살핀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불법체류여부와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건강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한다.
- 2)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과 합법체류 여부에 따른 건강 문제의 차이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조사는 2008년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 소재 가구단지와 협동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학적 자료와 건강문제, 관련요인, 치료기간, 의료기관의 종류, 건강검진, 병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설문지 내용을 읽어 주고 그 답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각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반장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응답은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문

제, 건강관리 실태는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과 불법체류여부에 따른 건강문제의 차이는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200명 중 남자가 184명으로 92.0%였고, 여자는 16명으로 8.0%였다. 나이는 20대가 8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53.0%), 40대(7.0%)순이었다. 국적은 방글라데시가 176명(8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네팔(8.0%), 필리핀(4.0%)순이었다. 이들 중 182명(91.0%)은 불법체류자이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200)

변수	구분	실수	%
성별	남	184	92.0
	여	16	8.0
나이	20-29세	80	40.0
	30-39세	106	53.0
	40-49세	14	7.0
국적	방글라데시	176	88.0
	네팔	16	8.0
	필리핀	8	4.0
불법체류여부	합법체류	18	9.0
	불법체류	182	91.0

2. 대상자의 건강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설사가 51.0%(102명), 감기가 48.0%(9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충치(19.0%), 외로움이나 우울증(17.5%), 위장장애(14.0%) 순이었다. 당뇨병과 간질환 같은 만성질환도 각각 8.0%, 7.0%를 차지하였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도 12명(6.0%)이 있었다. 그 외 피부병과 가슴통증, 무릎·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각각 10명(5.0%), 9명(4.5%), 8명(4.0%) 있었다(표 2).

외국인 근로자들이 꼽은 자신의 건강문제 원인으로 는 일이 힘들어서가 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식사문제가 55.0%, 잠을 못 자서 21.5%, 나쁜 작업환경때문 18.0%, 집에 가고 싶어서 17.5%, 나쁜 숙소

〈표 2〉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문제와 원인(N=200)

변수	구분	실수(%)	
건강문제	설사	102(51.0)	
	감기	96(48.0)	
	충치	38(19.0)	
	외로움이나 우울증	35(17.5)	
	위장장애	28(14.0)	
	당뇨병	16(8.0)	
	간질환	14(7.0)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	12(6.0)	
	피부병	10(5.0)	
	가슴이 아프다	9(4.5)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8(4.0)	
	건강문제의 원인	일이 힘들어서	116(58.0)
		식사문제	110(55.0)
잠을 못 자서		43(21.5)	
나쁜 작업환경		36(18.0)	
집에 가고 싶어서		35(17.5)	
나쁜 숙소환경	28(14.0)		

*복수응답

〈표 3〉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별에 따른 건강문제

건강문제	남 (N=184)		여 (N=16)		χ ²	p*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설사	98(53.3)	4(25.0)	4.70	0.037		
감기	90(48.9)	6(37.5)	0.76	0.270		
충치	35(19.0)	3(18.8)	0.01	0.640		
외로움이나 우울증	30(16.3)	5(31.3)	2.27	0.124		
위장장애	24(13.0)	4(25.0)	1.74	0.168		
당뇨병	14(7.6)	2(12.5)	0.47	0.373		
간질환	12(6.5)	2(12.5)	0.80	0.310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	11(6.0)	1(6.3)	0.01	0.643		
피부병	8(4.3)	2(12.5)	2.05	0.185		
가슴이 아프다	7(3.8)	2(12.5)	2.59	0.155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4(2.2)	4(25.0)	19.97	0.002		

* Fisher's exact probability

〈표 4〉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여부에 따른 건강문제

건강문제	합법체류근로자 (N=18)		불법체류근로자 (N=182)		χ ²	p*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설사	5(27.8)	97(53.3)	4.26	0.033		
감기	6(33.3)	90(49.5)	1.70	0.145		
충치	3(16.7)	35(19.2)	0.07	0.542		
외로움이나 우울증	2(11.1)	33(18.1)	0.55	0.356		
위장장애	2(11.1)	26(14.3)	0.13	0.524		
당뇨병	2(11.1)	14(7.7)	0.26	0.434		
간질환	2(11.1)	12(6.6)	0.51	0.365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	1(5.6)	11(6.0)	0.01	0.705		
피부병	1(5.6)	9(4.9)	0.01	0.619		
가슴이 아프다	1(5.6)	8(4.4)	0.05	0.580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2(11.1)	6(3.3)	2.60	0.155		

* Fisher's exact probability

환경때문 14.0% 순이었다〈표 2〉.

성별에 따른 건강문제는 설사와 무릎·허리통증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설사경험은 남성근로자들 중 53.5%가 호소하여 여성근로자의 25.0%보다 높았 으며, 무릎·허리통증은 여성근로자 중 25.0%가 호소 하여 남성근로자의 2.2%보다 높았다. 그 외 다른 건강 문제들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표 3〉.

합법체류여부에 따른 건강문제는 설사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불법체류근로자의 경험률이 53.3%로 합법체 류근로자의 27.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다른 건강문제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3. 대상자의 건강관리실태

정기적 건강 검진을 받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합 법체류 노동자와 불법체류 노동자간의 유의한 차이를

〈표 5〉 근로자의 합법체류여부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수검여부

정기 건강검진 수검여부	합법체류노동자 (N=18)		불법체류노동자 (N=182)		X ²	p
	실수(%)	실수(%)	실수(%)	실수(%)		
받는다	6(33.3)	16(8.8)	10.07	0.007		
받지 않는다	12(66.7)	166(91.2)				

보였는데, 합법체류 노동자의 수진율이 33.3%로 불법체류자의 8.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5).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의원, 약국, 지정병원, 종합병원 순서였으며, 해당 의료기관 이용이유는 '가까워서'가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잘 들어서'가 28.0%, '돈이 적게 들어서'가 10.5% 순이었다(표 6).

〈표 6〉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이유 (N=200)

변수	구분	실수(%)
의료기관	의원	140(70.0)
	약국	34(17.0)
	지정병원	14(7.0)
	종합병원	12(6.0)
의료기관 이용 이유	가까워서	123(61.5)
	잘 들어서	56(28.0)
	돈이 적게 들어서	21(10.5)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은 건강문제는 설사(51.0%), 감기(48.0%), 충치(19.0%), 위로움이나 우울증(17.5%), 위장장애(14.0%)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도구가 달라 정확히 비교할 수 없으나 설동훈(2005)의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질환중 위·십이지장궤양이 25.1%로 가장 높다고 한 결과와 위장장애와 그 증상이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것이었다. 추측하건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본국과는 다른 식습관 문화와 이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규칙적이고 적절한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장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당뇨병과 간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각각 8.0%, 7.0%로 이는 설동훈 등(2005)의 연구에서 당뇨병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전체 대상자중 10.3%이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설동훈의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혈압 유병율이 24.9%, 천식, 고지혈증도 각각 7.8%,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200명 중 대부분이 가구공장과 염색 공장, 도토리묵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는 불법체류자들로 방글라데시와 네팔, 필리핀인들이었으며 공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와 자취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일이 끝나면 숙소에서 TV를 보거나 너무 바빠서 TV볼 시간도 없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국보다는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죽을 때 까지 한국에 살 것이라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제공하는 가건물로 지어진 숙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선택의 폭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주거실태를 보면,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옥탑방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진여부는 합법체류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합법체류 근로자의 수진율이 불법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는 이전 연구(하은희 등, 2002; 설동훈 등, 2005)와 같은 결과이었다. 또한 합법체류여부는 건강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불법체류근로자의 설사 경험률이 합법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불법체류근로자들이 건강문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불법체류근로자의 경우, 합법체류근로자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작업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의원, 약국, 지정병원, 종합병원 순서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설동훈 등(2005)의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으로 보고되었고, 주선미(1998)의 연구에서는 병원, 김상순 등(1997)과 이

차임(2004)의 연구에서는 약국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각 연구의 대상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각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가까워서나 잘 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을 입은 근로자는 전체의 6.0%이었다. 이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15.8%가 산재경험이 있다고 한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치이었다.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에서는 산재대상자의 5%만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최재욱 등(1999)의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 중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은 14.3%, 공상처리가 32.1%, 본인부담이 28.6%, 사회단체 등의 후원이 25.0%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산재사고의 유형은 대부분 무리한 동작, 유해물질 접촉, 추락, 낙하비레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53.6%가 일하던 작업장으로 복귀하였으나, 나머지는 회사 또는 작업부서를 옮기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로 조사되었다(최재욱 등, 1999). 이러한 산재경험율은 국내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러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나쁜 작업환경과 안전보건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상은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의 개선과 함께 보상과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설동훈, 2005). 또한 위험하고 위대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교육과 홍보 및 계몽을 하여야한다(윤혜선, 2005).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설사경험은 남성근로자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무릎·허리통증은 여성근로자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식습관 패턴과 작업패턴, 생리적인 차이 등의 영향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다룰 때는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외국

인 근로자 200명으로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성별, 합법체류여부 등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강문제는 설사(51.0%), 감기(48.0%), 충치(19.0%), 위로움이나 우울증(17.5%), 위장장애(14.0%), 당뇨병(8.0%), 간질환(7.0%), 산업재해로 인한 손상(6.0%), 피부병(5.0%), 가슴통증(4.5%), 무릎·허리 통증(4.0%) 순이었다.
2. 외국인 근로자들이 꼽은 자신의 건강문제 원인으로 는 일이 힘들어서가 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식사문제가 55.0%, 잠을 못 자서 21.5%, 나쁜 작업환경 때문 18.0%, 집에 가고 싶어서 17.5%, 나쁜 숙소 환경 때문 14.0% 순이었다.
3. 성별에 따른 건강문제는 설사경험은 남성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무릎·허리통증은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다른 건강문제들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4. 합법체류여부에 따른 건강문제는 불법체류근로자의 설사 경험률이 합법체류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다른 건강문제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합법체류 노동자와 건강검진 수진율이 불법체류 노동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의원, 약국, 지정병원, 종합병원 순서였으며, 해당 의료기관 이용이유는 '가까워서', '잘 들어서', '돈이 적게 들어서'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근로자인 경우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상이한 건강문제를 보이고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불법체류근로자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상순 (1997).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1), 3-20.

김시평 (1990). 외국인 근로자유입에 따른 대책소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김현리, 김정희, 송연이, 이꽃매, 정혜선, 현혜진, 김희걸 (2006). 유해화학물질취급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과정.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5(2), 94-103.

법무부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박석운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서울: 법과 사회.

설동훈 (2004). 국내 외국인 노동자 차별 해소 방안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설동훈 (2005). 외국인 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 연구. 서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이연심 (2000).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차임 (2004). 경인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윤혜선 (2005).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서비스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주선미 (1998).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1999). 한국 일부 지역의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실태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1(1), 66-79.

허현주 (2001).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생활적응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윤철, 하은희 (1996).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8(1), 1-14.

- Abstract -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of the Health for the Foreign Workers

*Jo, Hyeon Ta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oreign worker's health problem.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and analyzed by using the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Result:** The most frequent health problem was 'diarrhea' and the next, 'cold' and 'dental car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blem by gen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blem, regular health checkup between legal workers and illegal workers. **Conclusion:** Judging from this study result, health program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male or female and whether they are legal or illegal immigrants.

Key words : Foreign worker, Health status

*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